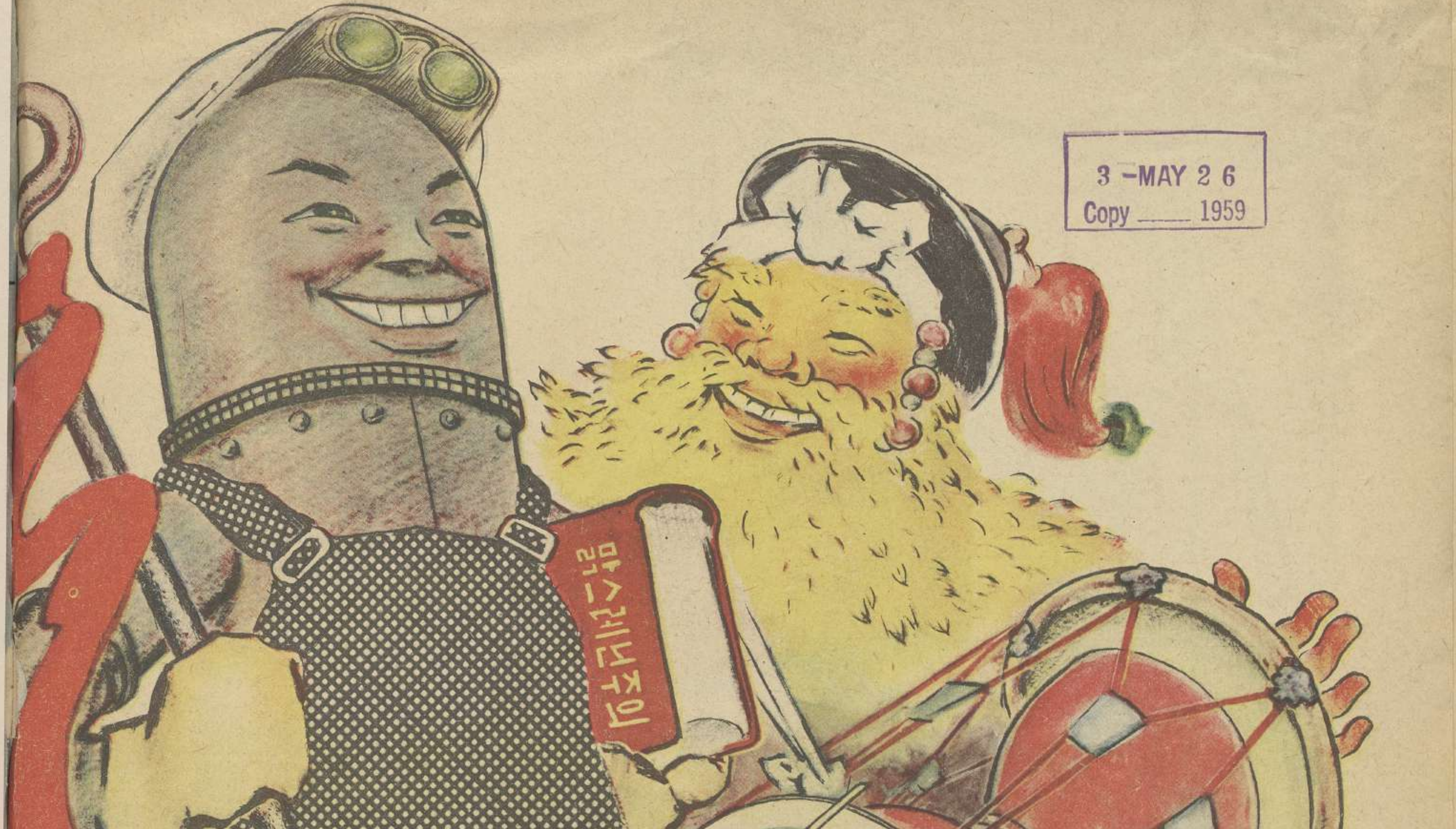
3 -MAY 2 6
Copy ____ 1959




인균 그림

11월호

1957.11.(84)

# 활살

박 승히 그림

—비켜라! 앞으로도 그 병'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갈 곳은 쓰레기통'속 밖에 없다!



# 예언과 사실

유 항 림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일어나자, 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 정권이 결코 2주일 이상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숙한 예언들을 했었고, 이 예언은 그들 사이에서는 기정 사실인 듯이 확신되였었다.

그러나 사실인즉 2주일이 지난 후에는 수도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 쏘베트 정권이 전국적 범위로 확고히 되고 있었다.

제국주의 렬강들은 청소한 쏘베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간섭군을 파견할 때, 자기들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어른이 어린애의 손목을 비트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었다. 그때 그들은 미해결 문제는 단지 쏘베트 정권을 전복한 후에 이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원동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간섭군들이 서로 물고 뜯었고 서쪽에서는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로씨야를 나눔데 대한 흥정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엔 간섭자들이 깨여진 환상을 안고서 물러났고 세계의 6분지 1에 첫 사회주의 국가는 거연히 서 있다.

공상적인 과학 소설로 이름난 에취· 지·웰즈——우주간의 전쟁을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풍부한 공상력을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웰즈는 쏘련을 전기화할 데 대한 계획을 듣고 말한 일이 있었다.

《쏘련의 전기화 계획은 나의 공상력으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상이 라》고

그러나 웰즈의 수명만이 그로 하여금 상상력의 빈곤이폭로되는 무안한 처지를 면하게 하였을 뿐이다.

쏘련에서 첫 5개년 계획이 발표 되였을 때도 제국주의자들은 예언했었다.

《지구가 거꾸로 돌지 않는 한, 쏘련에서 중공업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지구는 역시 바로 돌았고 제국주의자들의 판단력이야 말로 거꾸로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제국주의의 선봉대인 히틀러 군대가 쏘련 침범을 개시하자,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쏘베트 정권의 종말을 예언하기 시작했고 히틀러 자신은 3개월이내에 승리 하리라고 생각 했었다. 히틀러 군대는 동기간의 전투에 대처한 준비를 할 필요조차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과는 나치스가 격멸됐고, 엘바강에서 태평양까지의 광대한 지대에 [redacted]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했다.

온갖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정권을 자기들의 손에 튼튼히 틀어쥔 인민을 정복할 힘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제국주의자들은 리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군사 동맹들과 군사 조약들을 태산 같이 믿고 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군사 기지들로 포위했다고 장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단시일에 전격적으로 없애 치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험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런 예언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야망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실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장담하는 군사 기지들에 의한 포위는 그들의 환상 속에서만 그들에게 리익을 줄 것이다.

지금 쏘련 과학이 낳은 쏘련의 새 공민인 인공 위성이 9십만 메터 상공으로 미국 우를 날면서 백악관을 굽어보고 질문한다.

《지구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주와의 길을 열어 놓은 나라를 네 무엇으로써 포위했다 하나뇨 ? 》

청소하던 쏘베트를 압살하려고 무력 간섭군을 파견했던 사십년 전의 통치배들은 그래도 현재의 미국 통치배들보다는 현명한 곳이 있었던 듯 싶다. 그래도 그들은 일이 틀렸다는 것을 알자 기를 말고 꼬리를 끼고서 도망치는 것이 상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정당 방위"

오 흥 택

군산 미 군용 비행장—제 2대대 본부—미 항공 대위 해리슨은 경비병 헨리 1등병을 불러왔다. 1등병은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다. 대위는 꺼먼 알이 박힌 두터운 헌테 안경을 쓰고 1등병을 노려 보았다.

《헨리 조선 소년을 죽인 경위를 말하시요.》

《넷, 군수 물자 창고에 기여들어 도적질을 하려고…》

1등병은 당황한 듯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음 도적이 기여 들 때까지 뭘했어 ? 》

《지키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보고 있다가 창고에까지 기여 온 다음 총을 쏘았단 말이지 ? 》 대위는 이렇게 반문하고 흥미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담배'불을 붙였다.

《당신을 군법 재판에 회부해야겠소.》하고 대위는 날카롭게 말했다.

《대위 저는 정당 방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 가서 말하시오. 련발 무기를 가진 경비병이 5메터 거리에서 조선 소년 하나 잡는데 13발의 총알을 소비했소. 나는 당신이 저지른 사건에 흥미가 없소.》

대위는 화가 난다는 듯이 물었던 담배를 내동댕이쳤다. 그러나 1등병은 차렷 자세를 한채 대위의 거동만 지키고 있었다.

《헨리 1등병, 당신이 조선 소년에 겁을 먹고 총'대를 마구 휘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겁을 먹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탄알을 13발이나 소비할 필요는 어데 있소 ? 》

1등병은 대답을 못하고 서 있다.

《아메리카 대위가 아메리카 병사 앞에서 묻고 있소. 나는 조선 사람의 편이 아니요. 솔직히 말하시요》

1등병은 역시 대답이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위는 발작이나 일으키듯이 갑작이 의자를 거더차고 일떠서면서 고함을 쳤다.

《벙어리가 됐나, 왜 말이 없어, 민충이 같은 자식들 같으니, 아메리카 군인답게 야생적으로 행동하라》

대위는 개기름이 번지르한 얼굴을 씰룩거리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독백 처럼 띠염 띠염 말을 계속했다.

《5천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여기까지 와서—자극이 없는 생활, 스릴이 없는 생활, 예익 참을 수 없어, 시카고의 밤'거리가 그리워》

《이 비겁쟁이야 민충이 같은 자식아 조선 소년을 하나 죽이고 이꼴을 해》

1등병은, 그제야 대위의 속을 알았다는 듯이 이'발을 드러내 히죽이 웃고 말을 시작했다.

《대위 사실은 200메터 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대위는 책상 앞에 멈춰섰다.

《그래》

《조선 소년이 창고로부터 200메터나 떨어진 곳에서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군수 창고에 가까이 오면 한방 쏘려고 했는데 1시간 동안이나 인내성 있게 기다렸지만 좀체로 가까여 오질 않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 봤더니 소년은 풀을 집어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대위는 흥미가 있다는 듯이 1등병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까지 켜준 후 또 말을 재촉했다.

《그래서는 앞길에 총을 몇방 쏘았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은 겁에 질려 풀 짐을 동댕이치고 뛸려고 했습니다. 또 앞길에 총을 쏘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아서서 뛸려고 하질않겠습니까. 또 그 쪽에 대고 총을 쐈지요. 대위, 겁에 질린 조그만 소년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보니 헷 헷 헷…이 혈관이 오랬만에 펄펄 뛰질 않겠습니까 대위 상상해 보십시요, 아메리카에서 인디안을 잡던 그런 멋진 스릴이지요.》

1등병은 신이나서 코를 문질러가면서 말을 했다.

《음 흥미 있는걸 그래서 ? 》

대위는 또 말을 재촉했다.

《그런 조꼬만 자도 지혜가 있는가 봐요, 요놈이 살작 엎디질 않겠습니까. 겁에 질려 바라보는 고놈의 새까만 눈'동자를 묘준경에 넣고 팡 했지요.》

대위와 1등병은 통쾌하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악 하고 소릴 지르더니 몇번 꿈틀거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1등병은 이렇게 자기의 《무용담》을 끝맺았다.

《음 그런데 그 시체가 왜 군수 창고 옆에 있었소》

대위는 흐뭇한 감정에 휩쌓여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다구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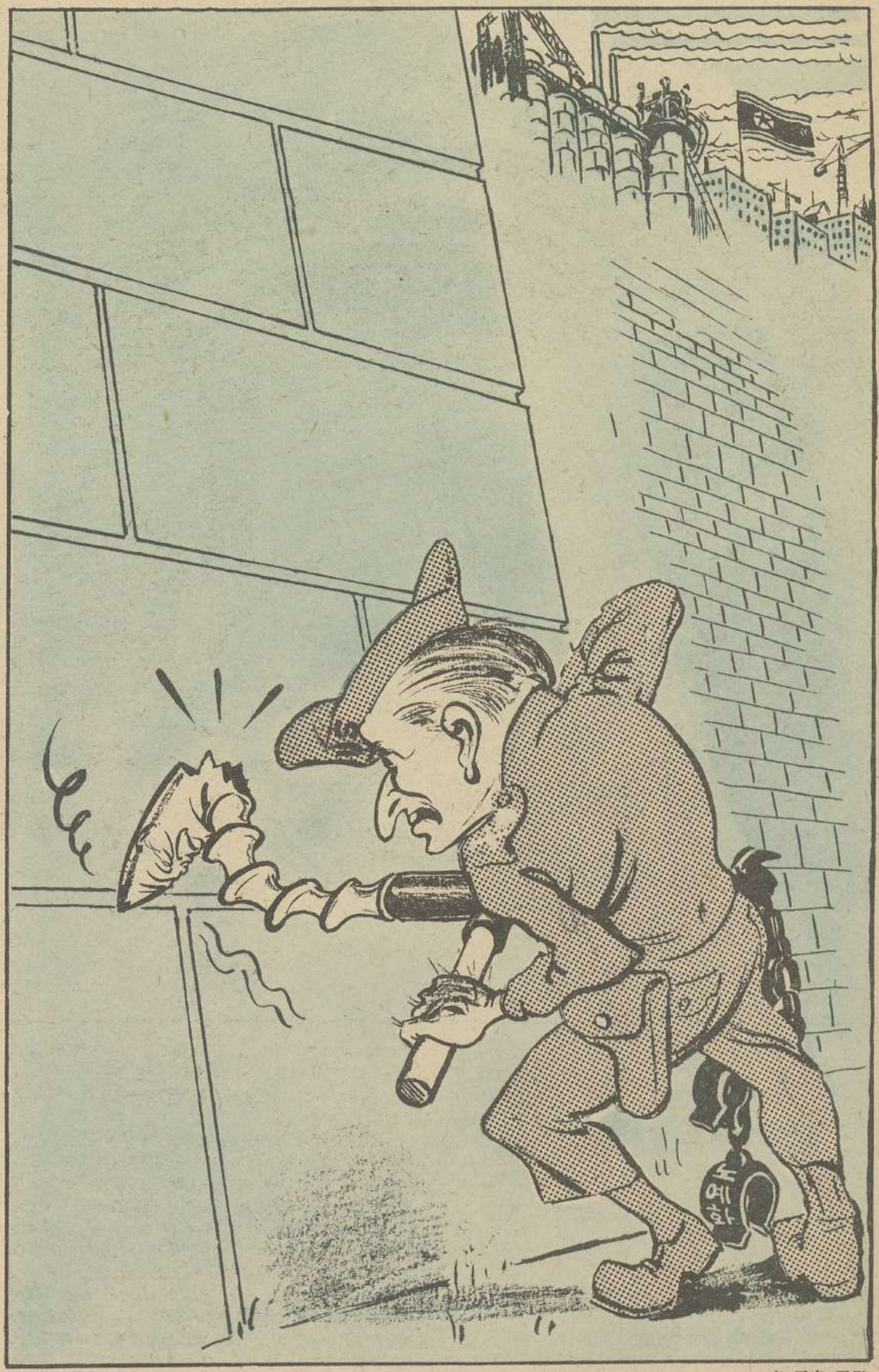
《대위 거야 알만하질 않습니까, 꿩사냥을 한다면 사냥'개가 물어오지만 이런 경우야 하는 수 없이 제가 가서 끌고 왔지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도적을 잡은 것으로 정당 방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대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메리카 병사에게 이따위 고리타분한 법률을 적용시키려는 것을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말썽이 있을까봐 그렇게 행동했지요.》

《오—헨리 1등병 당신의 행동에 탄복하오》

하고 대위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책상 밑에서 위스키 병을 집어 내었다.

《헨리 1등병 자 축배를! 아메리카 군인답게 야생적으로 행동한 것을 축하하고 당신의 정당 방위를 축하하오, 정복자로 나선 우리 아메리카인들의 특권을 축하하여—자 한잔—헨리!—》

## 이루어질 수 없는 야망




홍 종호 그림

미제—네가 고장이냐 내 힘이 부족이냐…

뢰성벽력

백 인균 그림

## 신판 놀부

12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회의장의 기자 휴게실에서 어느 한 아세아 국가의 기자와 어느 한 아랍 국가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남조선만을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는 리유가 어데 있다고 봅니까?》 어느 한 아세아 국가에서 온 기자가 묻는 말이다.

《그거야 리 승만 정부가 남조선에서 하두 인심을 잃고 점점 더 고립되여 가는 판이니까 우선 이런 기회에 림천을 안들이고 배척 받는 리 승만 정권을 합리화 해 보자는 속셈이겠지요.》

어느 한 아랍 국가에서 온 기자가 대답하는 말이다.

《물론 분렬되여 있는 나라의 한쪽만을 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대야 그런 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 일이고 따라서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부결될 건 뻔한 일 아니요. 남조선의 유엔 가입 문제를 끌고 나와도 미국 자신에나 또는 리 승만 정부에 별반 도움이 될 것은 없지요.》

《그야 물론이지요. 지금 조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분렬된 두 부분을 민주주의적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이번 책동은 또다시 유엔의 연단을 악용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거야 누가 모르겠소.》

《그렇지요. 미국의 상투 수단, 다시 말해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모를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 말이지 나는 요즘 우리 말로 번역된 조선 옛말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이 생각나는구만요.》

《어떤 인물이기에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방해하고 다 쑤어 놓은 죽에는 코를 풀어 넣고 자라나는 호박엔 말뚝 박는 짓을 일삼아 오던 자인데 이름은 놀부라고 했답니다. 이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로 꺾어 놓고는 제비더러 자기를 은인으로 알아 달라고 했답디다.》

《그래 그 놀부란 자는 나종엔 어떻게 됐습니까?》

《놀부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끝내 망하고 만답니다.》

《조선 사람은 과연 지혜로운 민족이요. 미 제국주의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자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소행 때문에 멸망을 면치 못하리란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셈이구만요.》



## 부레이크의 하루

최 재 홍

부레이크 하사는 수면 부족으로 충혈이 된 눈을 뜨고는 침대속에서 《깟뎀!》 하고 신음하듯 뇌까렸다. 어제 밤 늦도록 한 도박에서 뽕이 빠진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그의 탄생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도박에서 톡톡히 따 가지고는 오늘 하루를 나이트 구락부에서……또 《아가씨 사냥》으로 유쾌히 지내려던 것이 고만 그 뿌라운 소위놈한테 몽땅 떼우고 말았고 그 놈이 자기의 직속 상관이라 우격 다짐으로 도루 빼앗는 수도 없어서 속이 상했다.

밖에서는 세찬 북풍이 락엽을 몰아다 창문을 두뚫기고 있었다. 하늘마저 잔뜩 상을 찌프렸으니 부레이크의 심정은 울적할 대로 울적했다.

부레이크는 눈을 스르르 감고 시카고의 뒤'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음탕한 눈! 빨간 입술! 짜즈의 홍수! 철철 잔을 넘는 아부산! 주먹이 날고 칼이 번쩍인다. 총'소리 싸이렌 소리 붉은 피가 튄다. 이 모든 환상이 번개 같이 부레이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그의 몸둥아리엔 짐승의 본능적인 전률이 일어났고 피'줄기가 고동쳤다. 정신이 아찔해질 것 같은 흥분과 욕망이 부레이크로 하여금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였다.

몇시간 후, 부레이크는 명동거리에 나타났다. 그는 이 거리만은 거닐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명동거리만은 미국식을 따를려고 하는 것이 엿보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자그마한 "빠—"에서 독한 아부산으로 목을 적셨다.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부로닝과 살기띈 눈으로 위협을 하고는 유유하게 살아졌다.

이렇게 그는 몇집을 돎는 사이에 취기가 제법 흥겨워졌고 혈관에선 알콜이 춤을 추는상 싶었다.

짐승의 본능이 피'줄기 마디마디에서 광란적으로 새로운 쾌락과 스릴을 재촉했다. 그는 지난날 시카고에서의 생활이 또 몸부림 치고 싶듯이 그리워 졌다.

하물며 오늘은 그의 탄생일이 아닌가!

그의 머리엔 자기의 상관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 앞에 나타난 자가 늙은이나 어린애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부레이크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소리를 질렀다. 《아름다운 색시! 딸라! 그렇다 딸라다 딸라가 있어야 돼》

그날 오후 청량리 한끝을 달리고 있던 택시 한대가 급히 정거하더니 비명도 없이 운전수가 떨어지고 택시는 오던 길을 되 돌아 질풍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지나던 어린 소녀이 택시 바퀴에 감겨 돌아가 피를 흘리고 사라졌다. 달려 온 경찰은 행인들한테서 죄인은 미군이란 말을 듣고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부레이크는 흥에 넘쳐 거리를 걷고 있었다.

《브라보! 나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부레이크는 운전수에게서 털어낸 지전을 꺼내들고 웨쳤다.

《자 아가씨들아 이 아메리카 신사를 껴 안어라! 나에겐 딸라가 있다!》

그러나 그는 놀랬다. 아메리카의 신사인 자기에게… 이렇듯 지전 뭉치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누구 하나 눈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는 다짜고짜로 지나가던 어떤 녀인에게 손을 뻗쳤다. 순간 매섭게 후려 갈기는 손'바닥이 그의 뺨에 와 맞았다. 다시금 달려 오던 부레이크는 어느 틈엔가 수 많은 증오에 타는 시선들에게 둘러 쌓인 자신을 발견하였다.

아! 시선 시선들! 바로 지금까지 어리석고 쇠약하다고만 생각하여 오던 조선 사람들이 이처럼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다니… 부레이크는 뒤'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증오와 복수에 타는 정의의 시선들은 브레이크를 조이고만 있다.

어디선가 "미군 나가라!"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것은 일대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또 다른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자식과 동생들을 죽인 짐승 같은 죄수놈을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

부레이크는 온 몸에 소름이 끼침을 느끼고 팔다리가 떨렸다. 그는 엉겁결에 권총으로 손이 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조선 사람의 억센 손이 그의 떨리는 손목을 꼼 짝도 못하게 굳게 틀어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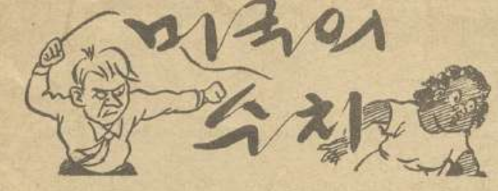
사람들은 웨쳤다. 《이런 짐승 같은 놈은 우리 손으로 처단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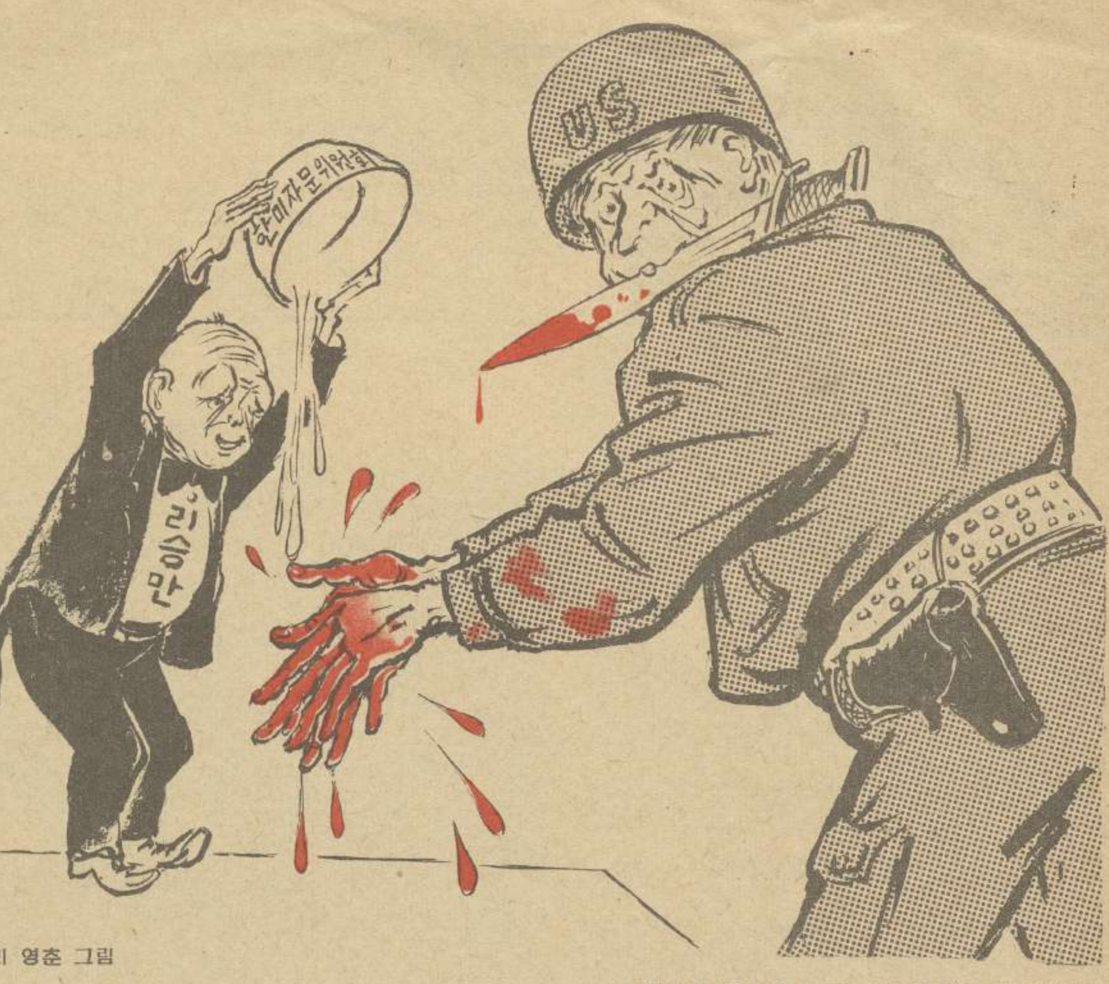
### 총'소리 뒤에 개소리

조 명식 그림

리 승만—미국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미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 씻을 수 없는 죄악




리 영춘 그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한미 자문 위원회》를 조작하여 미군의 야수적 만행을 음페하며 높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릿틀—로크…이 도시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어제까지도 적었다. 그러나 오늘 이 이름은 전 세계 출판물에 오르고 있다.

릿틀—로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9월 23일 8명의 흑인 학생들이 백인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들을 막기 위하여 이 학교 건물 곁에는 2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경찰도 나타났지만…그 다음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미국 유•피 통신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진상을 보도하고 있다.

《순식간에 무서운 광경이 버러졌다…이것은 폭발이였다. 이것은 야만성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계속되는 반응이였다. 이 반응은 한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점차로 확장됐으며 그들로 하여금 백열화된 군중으로 변화케 했다.

나는 불씩 거리 복판을 걸어간 흑인 4명을 보았는데 사람 무리는 괴상하게 야수적으로 부르짖었다. 《흑인들이 이리로 온다!》 이 무리는 학교를 등지고 일순간에 흑인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네명의 흑인에게 달려 붙들기 시작했다…

나는 백인들이 유보도에서와 학교에서 좀 떨어진 어느 집 잔디밭에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 뜯는가를 목격했다. 미칠듯이 싸우는 사람들의 산'데미가 형성됐다. 한사람이 키큰 흑인을 때리자 다른 사람이 뒤로부터 그 한테로 덤벼들어 그의 목을 글어쥐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사람의 떼가 흑인을 구타한 바로 이때 아이들이 학교에 다가 갔다.

《나를 향하여 곧바로 세명의 흑인 소년과 5명의 처녀가 학교 남쪽 승강구 옆문으로 갔다. —통신 기자는 계속 쓰고 있다—이것은 잊지 못할 광경이였다. 그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였다. 그들은 덤비지 않고 조용하게 갔는데… 그들은 사람들과 경찰을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바라 보았다.

이와 같은 장면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역시 다음에 생긴 장면도 잊을 수 없다.

4명의 남자 흑인을 해치울려고 달려갔든 사람들은 지금 경관들과 바리케트쪽으로 물결 처럼 밀려갔다.

야수화한 무리는 어디라할 것 없이 흑인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다. 띠를 풀고 달려 드는 불량배들은 흑인 주민을 반대하여 테로를 횡행하면서 온 도시를 뒤흔들었다.

릿틀—로크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사건은 전세계 여론의 분노에 찬 비난을 야기시켰다. 심지여 그 악명높은 《미국의 생활 양식》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찬양하던 우익 불죠아 신문까지도 이번에는 비판적으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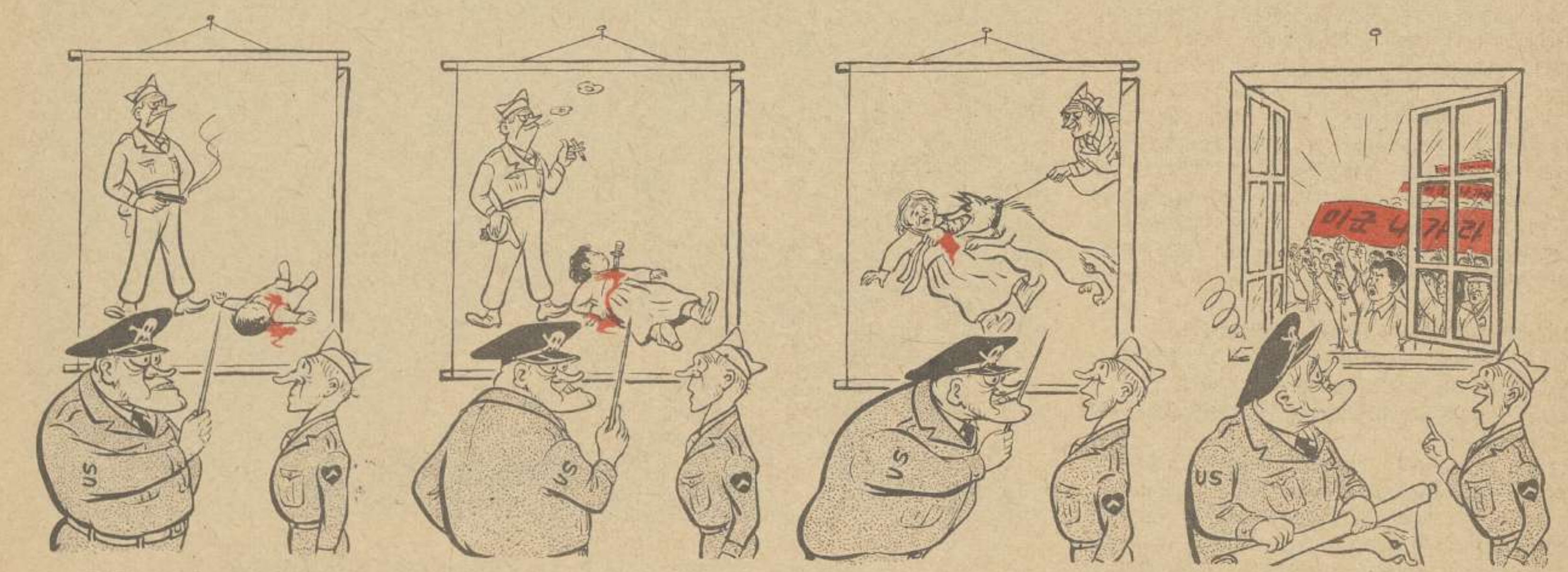
《릿틀—로크에서 폭발한 만행은 무서운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됐다.》— 불란서 신문 《에코》는 이렇게 썼다. 또한 영국의 《뉴—쓰 크로니크》는 릿틀—로크에서 일어난 인종적 충돌은 분개할만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릿틀—로크에서의 추문과 사회층의 분개는 미국 지배층들로 하여금 그 어떤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르깐지스 주에서의 사태의 엄중성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릿틀—로크로 련방 군대를 주둔시킬 것과 아르깐지스 주의 경비대의 《련방화》를 명령했다. 유•피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101 락하산 사단의 1200명의 장병들이 이미 그 문제의 장소에 비행기로 수송됐다 한다.

이 광경은 현대의 《민주주의적》 미국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와 자랑, 영예가 어떻게 《확보 되고 있는가》를 어떤 말로써 보다 더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쏘련 문학 신문에서 (한 동신 번역)

원 광수 그림




—이런 경우에는 "도적놈"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경우에는 "파실치사"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경우에는 "침입혐의자"라고 하면 되지

병사—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무어라고 하면 됩니까?

—?…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7, 28호에서 전재
유•간프 그림

미국 기술의 새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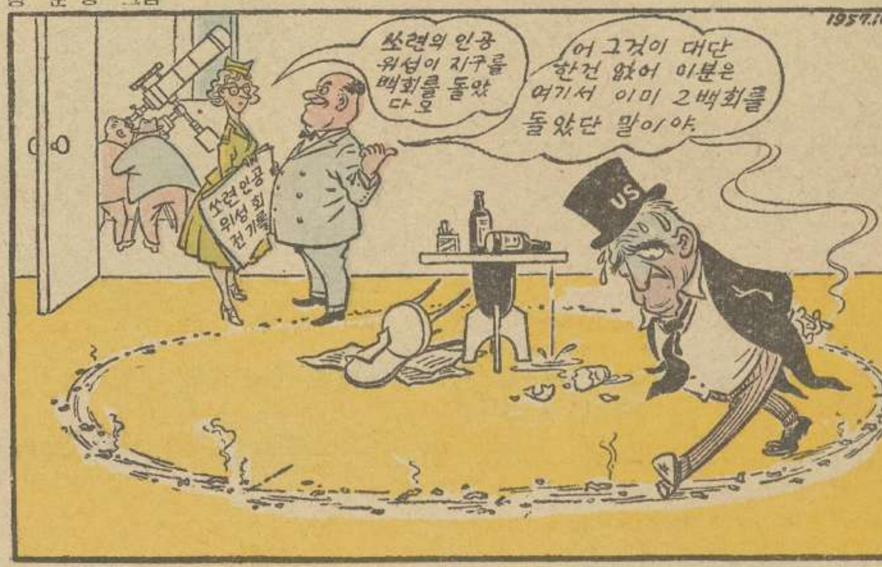
편리한 광물 채굴기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7, 24호에서 전재
(루마니아화가) 벨라 끄바라 그림

식민주의 활동

사막에는 발'자국이 났다 그는 우리에게 야수성을 강의하고 있다

중국 인민 일보에서 전재
정 문중 그림




### 경각성이 우던 구석을 찾아서

### 술 맛

어둠 속을 해치고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차츰 친해졌을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한 중년객이 시계를 들여다 보더니 일어섰다. 그가 어느 공장의 기사장이란 것은 이미 소개되여 있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겠는데 자리를 좀 봐 주십쇼.》

그는 옆에 앉아 있는 로인에게 부탁하고 나서 임자가 있다는 표식으로 모자와 들가방을 자기 자리에 남기고 식당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돌아 오더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든지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였다. 책임적인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책임감이 강하다고 느껴졌다.

두어 시간 후에 그는 술이 얼근히 취해서 돌아왔다. 그런데 술 기운이 돌고 보니 마음이 상쾌해 진 모양이다.

《젊은 량반이 술을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로군!》

《뭐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차'간에서 한잔하는 맛이란 특별하니까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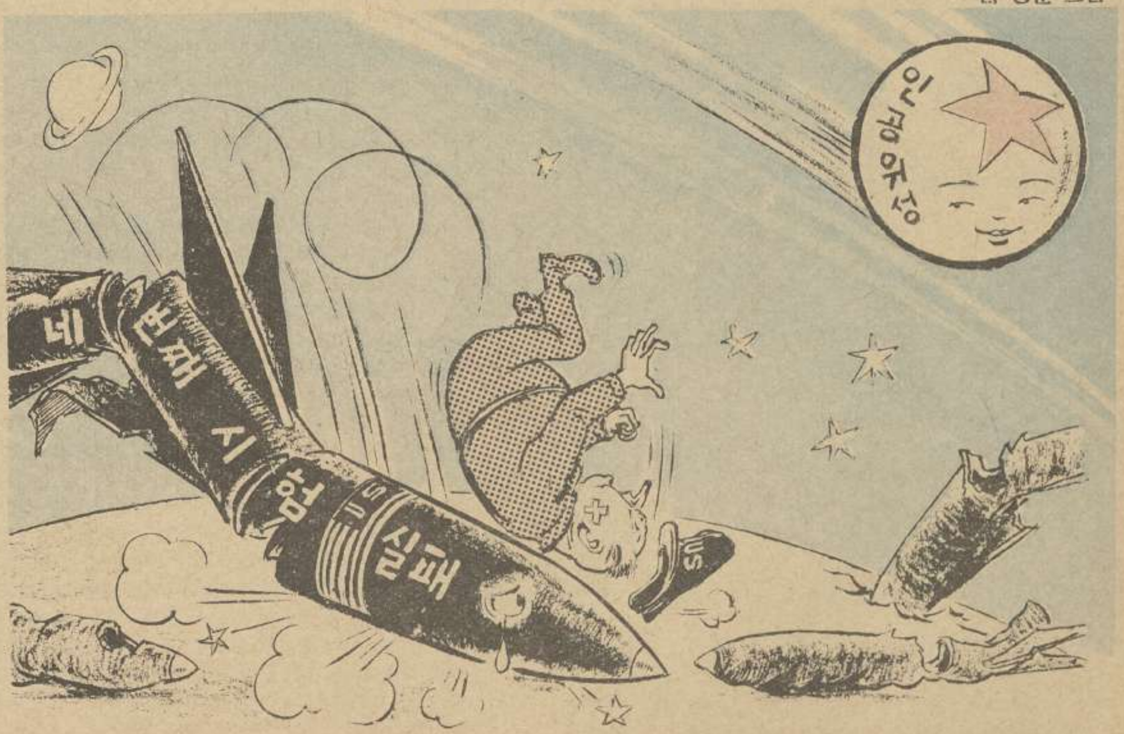
그는 빨개진 얼굴에 상쾌한 웃음을 띄웠다. 이윽고 그는 술의 덕을 보아선지 잠이 들더니 차가 달리든 몇 든 아랑곳 없이 아침이 되도록 눈 한번 뜨지 않었다.

그런데 잠들 때는 빨겋던 그의 얼굴은 아침에 정신이 들자 단박 백지'장 같아지고 말았다. 중요 문서들이 들어 있는 그의 들가방이 간데 온데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사장은 술이 깬 뒤에야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강조하던 그 술맛이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미국 유도탄의 땅' 재주

리 영춘 그림




미국은 연구용 로케트 발사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10월 16일에 네번째로 시험한 로케트는 발사되지도 않았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예술축전에서

조 명식 그림

—아름다운 당신들의 예술은 우리들을 황홀케 하였지요

—10월이 가리켜 준 길로 우리가 걸어온 결과지요

우주에로 가는 길은 열렸다

허 능택 그림

영원한 친선 속에 우리는 전진한다

허 능택 그림

## 원망스러운 하나님

신 흥 순

쏘련에서 발사한 인공 지구 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쉴 사이 없이 빙빙 도는데 따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머리도 자꾸만 팽팽 돌고 있다.

그는 실성한 사람 모양으로 《위성 위성》 하고 중얼거리면서 방안을 맴돌고 있다. 열바퀴 스므바퀴

《이번에야 틀림 없을테지!》 그는 이제 곧 실험을 하게되는 네번째의 로케트 발사가 부디 성공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발사 시간이 되었다. 텔레비죤 앞에는 아이젠하워를 비롯하여 국방 장관이며 대공 방위 사령관 등 군부측 고관 들이 모여 있다.

텔레비죤 스크린에 비치는 실험 현장에는 만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듯 발사 구령이 나리기만 대기하고 있다. 지휘관이 성조기를 번쩍 들어 신호를 하자 로케트에서 연기가 펄썩 난다. 그런데 어쩐 일일가? 로케트는 올라 가지도 않는다.

모두가 눈이 둥그래서 서로 얼굴들만 쳐다 본다. 《또 실패? 체!》 아이젠하워는 기가 탁 막혔다. 어찌 영문인가를 곧 현장에 알아보니 이번에는 로케트가 숫제 땅에서 올라가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의 의자에 펄석 주저 앉았다.

그러자 이때 로케트 제작 공장인 마틴 회사에서 급보가 왔다. 내용인 즉 로케트 제작 중 수압 땅크가 폭발되여 기술자 1명이 즉사하고 3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이것을 수리하자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엥이 바보들 같으니》 그는 부아가 머리 끝까지 나서 원망스런 눈으로 예수의 초상을 바라 보았다.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하나님은 아니로구나!》

그날 밤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에게 화푸리나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우리 미국 국민을 그냥 말려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줍시사 하고 전 주민이 기도를 올렸는데도 우리의 로케트는 벌써 네번째나 거듭 실패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인공 위성을 띠울 수 있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개한 흑인이나 약한 나라 인민을 착취해 먹고 사는데 습관이 된 우리 미국이 과학에서 이렇게 뒤떨어 졌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어떻게 살아 가란 말입니까? 네? 하나님》



## 인공 위성

김 현 석

우리가 흔히 평화 력량이 이미 승리를 거둔 지역의 범위를 말하게 될때 《엘바강에서 태평양 지역까지》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 지역의 범위를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말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였다.

얼마전 흐루쇼브가 미국 뉴욕 타임스의 외교관계 수석 기자를 접견한 석상에서 그 신문 기자의 년령을 물으면서 40년 후이면 기필코 전 지구 포괄적인 공산주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명한 사실과도 련관시켜 오늘날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의 전면적인 승리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의 전면적 승리의 정경을 묘사할진대 그것은 한마디로 지상락원이다.

인류의 모든 총명과 지혜는 송두리채 찬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바쳐질 것이다.

오늘날 위대한 쏘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들이 바로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다른 이야기는 다 그만 두고라도 인공 위성이 쏘련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한때 쏘련의 료리사들이 인간의 자양을 위한 맛나는 음식 만드는 법을 호상 교환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할 것을 원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미국 출입구인 하드손 강반에 살이 포동포동한 영양 좋은 자태로 서 있는 《자유의 녀신》을 비롯하여 아이젠하워 덜레스 부인등이 상을 찌푸렸든지 어쨌든지는 알길 바이 없으나 하여튼 백악관 《신사》 제씨들이 지극히 당황하여 쏘련 료리사들의 입국을 결사 반대하는 일대 운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게 된다.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하게 됨은 카츠레츠도 쏘련 카츠레츠를 먹으면 공산주의 양분이 전신을 새빨갛게 물드린다는 것이 미국 《신사》들의 하바즈 대학식 영양학인 모양인데 오늘날 쏘련의 인공 위성이 지구 주위를 이미 수백 바퀴채 돌고 있는 사실 앞에서 미국 《신사》들의 표정이 어떨 것인가를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쏘련의 인공 위성이 뉴욕 상공을 이미 여러차례 통과하였다. 바로 12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공을 이번에야 말로 영낙 없이 《자유 녀신》을 비롯하여 미국 《신사》 제씨들이 오—오—발음을 재착하게 되었을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지구상의 모든 보통 심장 가진 사람들이 인간 지혜의 란만한 개화를 인류의 이름으로 되는 긍지감을 가지고 축하하고 있을 때 미국 《신사》들만은 질투와 불안으로 몸이 폭발되고 말 지경에 이르고 있다.

——《누구요, 소장 아니요 그래 저놈의 위성 운동을 정지 시킬 수는 없단 말이요?》

——《안될 일입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치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저주하소서》

미국에서 이같은 대화가 백악관 주인들과 과학 연구 소장들 사이에 교환되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여하간 쏘련의 료리사나 축구 선수를 입국 사증으로 막아 냈던 권세 많은 백악관 주인들도 이번의 인공 위성만은 어찌는 도리가 없다.

인공 위성은 이미 백악관 지붕 우를 여러 바퀴채 지나 갔다.

쏘련의 인공 위성은 전 인류에게 평화 위업 승리의 확신을 부어 넣으면서 자꾸만 돌아 가고 있다. 량심 가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공 위성 회전이 일으키는 바람을 따사로운 평화의 바람으로 느끼면서, 흐뭇한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새'별 같은 총명한 눈'동자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감회로 바라다 보고 있을 때 미국 《신사》들은 넥타이까지 풀어 헤치고 독한 아부산 술'잔만 기울이고 있다.

최 영근 그림

## 들 뜬 사람들…

《평양시 설계 연구소 일'군들은 〈표준 설계는 건설의 질을 저하시킨다〉느니 〈표준 설계는 건축미를 보장 못한다〉느니 하면서 공명심에 사로 잡혀 자기의 소위 〈명성〉을 떨치기 위한 대상 설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에서 하신 박 금철 부위원장 동지의 보고 중에서〕

# 아직도 졸고 있다

스라크 벽제 브록크 생산에 대한 국가 계획을 접수한 건설 건재 공업성에서는 9월 17일에 평양시 서구역에 있는 제 2 트레스트에 하달하였다. 그 계획은 건설을 조립식 건축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 착수해야할 스라크 벽체 브록크 생산 계획이였다.

제 2 트레스트에서는 9월 18일 이 계획을 접수했는데 지도부의 결재를 맡노라고 기요원이 4일간 쥐고 있었고 닷새만에야 계획부에 돌아갔다. 다시 계획부에서 국가 계획은 6일간 아무런 토의도 없이 머물러 있었다. 정식 계획 과제를 하달하고 로력 자금, 자재에 대한 것을 보장하고 대책을 세워 줄 대신에 9월 30일에 가서 계획부에서는 국가계획이 내려 왔으니 와서 베껴가라고 생산부에다 련락했다. 생산부에서는 베껴 가라니 베껴왔을 뿐 보조 공장 즉 브록크 공장에는 하달도 하지 않았다. 브록크 생산 과제는 제 2 트레스트 어느 부에서나 한번도 토의하지 않았다. 10월 12일에 브록크 공장장을 만난 제 2 트레스트 계획부장은 그나마도 요행히 생각이 나서 생산 과제를 구두로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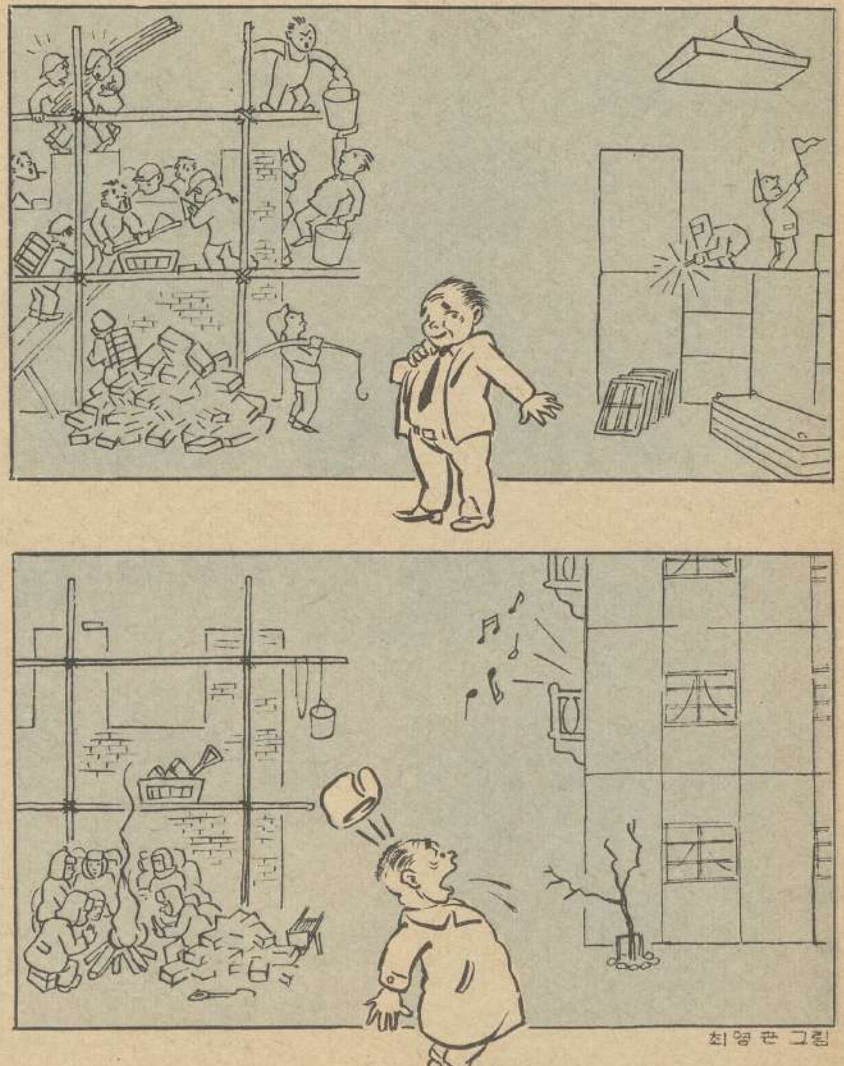
그런 줄은 모르고 제 1 트레스트 건설 현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만들어 온다는 스라크 벽체 브록크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야 했으니 건설 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이처럼 건설에서 수공업적인 방법을 퇴치하고 건설에서 혁신적 방법으로 할데 대한 상부 지시를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동원되지 않는데로부터 인민 대중의 요구, 국가의 요구보다 건설 사업을 뒤떨어지게 집행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의 공업화를 반대하고 나섰던 반당 종파분자 김 승화의 여독이 아직도 가시지 못한 채 건설 일'군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하나의 표현이다.

김 상 애

---

## 보수주의자에게 주는 실물 교육





# 《평 잡는게 매》라는 구호가 가져온 후과 이모저모

## 피현군 상업부장의 솜씨

《분명히 전 장날까지 있던 소비 조합 국수'집이 간데 온데 없어지고 말았으니 어찌된 셈일까? 아무리 보아도 그집은 그집인데 사람들도 낯설거니와 음식도 달라》 장날이면 의례 들려서 제집처럼 몸도 푹 쉬고 가며 국수를 먹고야 가던 박령감은 영문을 몰라서 물어 보았더니

평북 피현군 인민 위원회 상업부에서는 개인 상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다고 장사'군들을 모아서 합동 식당을 차려놓키로 하였다. 그래서 전부터 있던 소비 조합 국수'집을 걷어치우고 방금 조직한 합동 식당을 앉히여 놓았다. 박령감은 모르는 생각에 상부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럴사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소비 조합 국수'집을 없이한 건만은 섭섭한 원갈이 생각됐다.

×

게다가 상업부장님은 군 소비 조합에 지시를 띠여 30 여종의 상품을 그 상점에 외상으로 주게했고 피현읍의 소비 조합 상점들에서는 상반년 동안에 수 백만원어치를 그 상점에 도매로 넘겨 주게 했다. 이와 같이 세심한 처리를 해 놓은 피현군 상업부장님은《개인 상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참 힘든일인데도 나는 솜씨있게 해 놓았으니 내 솜씨도 대단한걸》…하고 만족해 한다.

## 인심좋은 수매원

까나리 산지로 이름 난 황해남도 룡연군은 금년에 까나리가 많이 잡혀서도 흥성거리지만 잡히기가 무섭게 팔려서도 흥성거린다. 각처에서 몰려 오는 수매원 성화에 이곳 수산 사업소나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나한테도 다만 얼마라도 주어야 할게 아니요?

—글세 군 소비 조합하고 벌써 계약이 됐대두 그래…

—그러기에 군 소비 조합보다 값을 퍽 더 봐 올린대두 그러비——

…………

해주 상업 관리소에서 온 수매원은 수산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붙들고 이렇게 까나리 값을 한꺼번에 거이 30%나 올려 놓았다.

—아저씨 그 까나리랑 우리에게 꼭 넘겨 주어야 합니다——

—글세 해주 상업 관리소 수매원하고 계약이 됐다니까그래——

—그러기에 해주 상업 관리소 수매원보다 한 30% 더 놔 드린다고 하지않소

이렇게 황해남도 식료품 도매 상사 수매원이 수산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붙들고 까나리 값을 또 엄청나게 올려 놓았다. 이처럼 꿩 잡는게 매라는 구호대로 값은 어떻게 됐든지 덮어놓고 사들임으로써 금액상으로만 수매계획을 초과하려는 수매원들에 의하여 까나리 값은 벗쩍 올려 놓았다

## 수매는 하였건만

함경남도 군 소비 조합들에 전례 없이 수매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수매 사업을 강화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때부터 였다.

고원군 소비 조합에서는 싸리비 5만여개 도리깨아들 십만삼천여원어치를 사서 뜰악이 좁다하게 쌓아 올려 놓고 이제야 수매 사업이 제법 궤도에 오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고원군 소비 조합에서만이 아니라 광천군 소비 조합에서도 도끼'자루를 7천여개나 쌓아 올리고 또 함남도 수매품 도매바자에서는 무말린 것 40여 가마니를 쌓아 놓고야 이만하면 수매 사업을 강화하라는 상부 지시를 충실하게 집행 안했다고 할 수 없지 하고 안심까지 하게 되였던 것이다. 이처럼 판로와 가격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저저마다 도리깨아들, 싸리비 무말린 것 등 닷는대로 잔뜩 사서 쌓아 올렸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사겠다는 임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보니 그렇게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되였던 일이 점점 근심스러워지는 첫이였다. 도리깨아들이나 싸리비, 도끼'자루 같은거야 썩지나 않치만 무 말린 것은 점점 변질하기 시작했으니 날이 갈수록 걱정거리는 더 커질 뿐이였다. 그러던차에 국가 상업 기관들에서 부패 변질 파오손된 상품으로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것은 매몰 소각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금 리용할 수 없도록 처분하라고 한 반당 종파분자 윤 공흠의 1955년 9월 26일부 상업성 지도서 제 16호 생각이 문뜻머리에 떠올랐다. 옳치 이제야 됐구나——함남도 수매품 도매 바자에서는 색다른 포장 사업이 시작됐다. 무말린 것 40 가마니를 헤쳐 놓고 들어갈 수 있는대로 돌을 다졌다. 그리고는 또 다시 묶었다. 이 포장이 끝난 무말린 것 40가마니를 성천강 물'속 깊이 가라 앉히고서 그러면 그렇치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이야 어디 있나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수매 사업을 강화하라 한다 해서 판로도 가격도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사드린 이곳 일'군들은 불량 상품 처분이라는 반당 종파 분자 윤 공흠의 반역적인 지시가 또 저으기 마음에 들기까지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인민들이 요구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판로는 고려함이 없이 무책임하게 일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재산을 랑비하였다.

김 상 애

## 제 피에 빠졌다

함남 건설 트레스트를 비롯한 건설 건재 공업성 산하 일부 건설 트레스트 지도 일'군들은 금년 상반년에만도 막대한 량의 허위 실적 보고를 하는 등 비법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서 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송 용남 그림

## 놀리는 기대에서 나오는 생산품

각 성국 산하 공구 직장들에서는 리용률이 낮으면서도 기계를 더 달라고 하고 있다.

홍 종호 그림

## 모두다 건설에 나섰는데

원 광수 그림

# 옥수수 탈곡기와 토피

김 문 규

계절이 바뀌고 달이 시월에 잡아들면서부터 홍원 읍내 작난 꾸레기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때가 되였다. 그것은 비단 날씨 좋은 맑은 하늘 아래서 마음껏 작난 칠 수 있게 되였기 때문만은 아니였다.

광장에 빼곡히 놓인 40여대의 옥수수 탈곡기들에는 구름떼처럼 아이들이 모여 들었다.

그러나 어데선가 《이놈들!》큰 소리가 들리면 《야—지배인이다!》 아이들은 질겁해서 팔방으로 도망쳐 나갔다.

× × ×

바루 몇 달전 일이다. 홍원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실에는 토건 협동 조합 지도일'군들이 불리워 왔다. 위원장 림 봉식 동무는 《자 우리 군에서도 토피에 의해서 지방 건설을 해야하겠는데 그러자면 우선 토피가 생산돼야 하지않겠소. 그러니 동무들 토건 협동 조합에서는 우선 토피를 생산할 것을 권고하오. 아주 우수하고 멋진 토피를 생산하시오. 그러면 우리 읍내에서는 모두 동무들의 토피를 사다가 집을 짓게 될거요》

그후 토건 협동 조합에서는 토피 생산에 대한 기술을 멀리 함흥까지 가서 배워왔다. 그리하여 아주 우수하고 멋진 토피를 그것도 극히 정묘하게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쎄멘트와 석회와 석탄재로 만들어 낸 토피는 토피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우수했고 따라서 그 값은 비싼 판매 가격이 나붙었다. 1만매 2만매 토건 협동 조합의 넓은 앞뜰에는 생산된 토피가 쌓여 올라 가기만 하고 팔리는 것은 한장도 없었다. 초조해진 협동 조합 일'군들은 군 인민 위원회를 다시 찾아왔다. 군 인민 위원회 지도부는 《걱정 마시요. 당신네 토피를 사용치 않는다면 건설 허가를 내 주지 않을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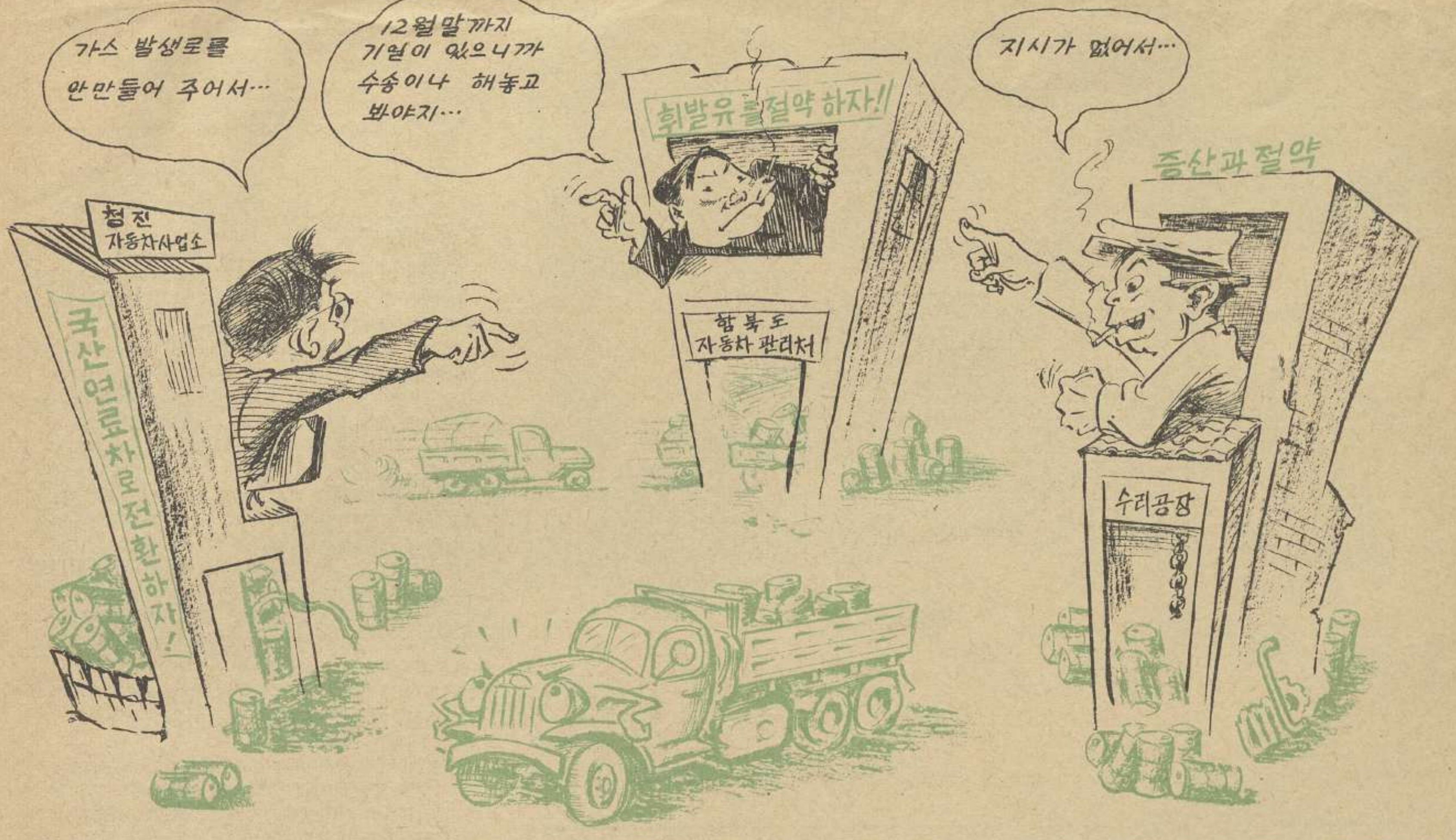
토건 협동 조합은 군 인민 위원회 지도부의 이 말을 하늘과 같이 든든히 믿었다. 《토피》생산은 계속되였다. 협동 조합 앞뜰의 토피는 4만매 5만매 6만매로 늘어 나갔다.

동시에 벽돌 값보다도 비싼 《토피》를 사기에는 예산이 맞지 않은 중학교 교원사택, 편의 협동 조합 건물, 농기구 및 건재 상점 창고등, 상부로부터 내려 온 건설지시서는 군 도시 경영부 책상 속에 쌓여만 나갔다. 광장에는 옥수수 탈곡기가 그대로 로천에 놓여 있다.

길'가에 놓인 두가지 귀중한 물건 옥수수 탈곡기와 《토피》는 이곳 군 인민 위원회 지도부가 무책임하여 지방 건설 과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려 하며 사업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한가지 문제로하여 서로 련결되여 있다.



## 외화 절약에 무관심한 일'군들




백 인균 그림

## 머루다래의 항의

최 영근 그림

자강도, 량강도내 식료품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이 지방에 많은 머루다래를 생산 원료로 쓸 대신 국가에서 밀가루, 사탕가루 등을 배정해 줄 것만 바라보고 있다.

# 구름에 떠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 창고들에는 조그마한 부속품 하나 뭘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제승기, 가마니 기계 선풍기, 탈곡기 등등이 쌓여 있건만 그까짓 조그마한 부속품을 만드는 것은 농기구 공장에서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속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일한 보람을 안 느껴서인지 기양 농기계 공장에서도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도 시치미를 떼고 아직까지도 모르는척——

탈곡 사업이 한창인 중화군 야금 농업 협동 조합을 찾아 갔다. 제승기 탈곡기 선풍기등이 얼기 설기 놓여있는 창고에서 창고장과 생산 기수 리 동무가 선풍기 날개쪽을 이것 저것 뽑어 마치노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탈곡이 시작되기 전에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손질을 해서 내 보냈건만 탈곡 기세가 와짝 오르자 각 작업반에서는 탈곡기 선풍기를 저마다 더 달라고 야단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몇 대의 선풍기에 매달려 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수—고장난 것은 기술자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씁니다마는 날개쪽이 떨어져서 없어진 거야 어떻게 하는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날개쪽만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물었다.

기수—글쎄 그렇게 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돼서 그러는게죠, 날개쪽 하나만 떨어진 멀쩡한 것을 두고 또 새 것을 사들일 수도 없고… 기계 부문 일'군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날개쪽만 만들어서 판다면 우리 조합에서는 적어도 열 대여섯 대는 방금이라도 조립해서 쓸 수 가 있습니다.

벼 탈곡기를 옛날과 같은 족답기는 사기쉬우나 동력탈곡기는 사기 힘이든 형편입니다. 우리 농촌은 사회주의로 다름박질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조합에서는 벼 탈곡을 족답기로 하고 있답니다. 농촌은 전기화 됐는데 아직도 낡은 족답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리해하기 곤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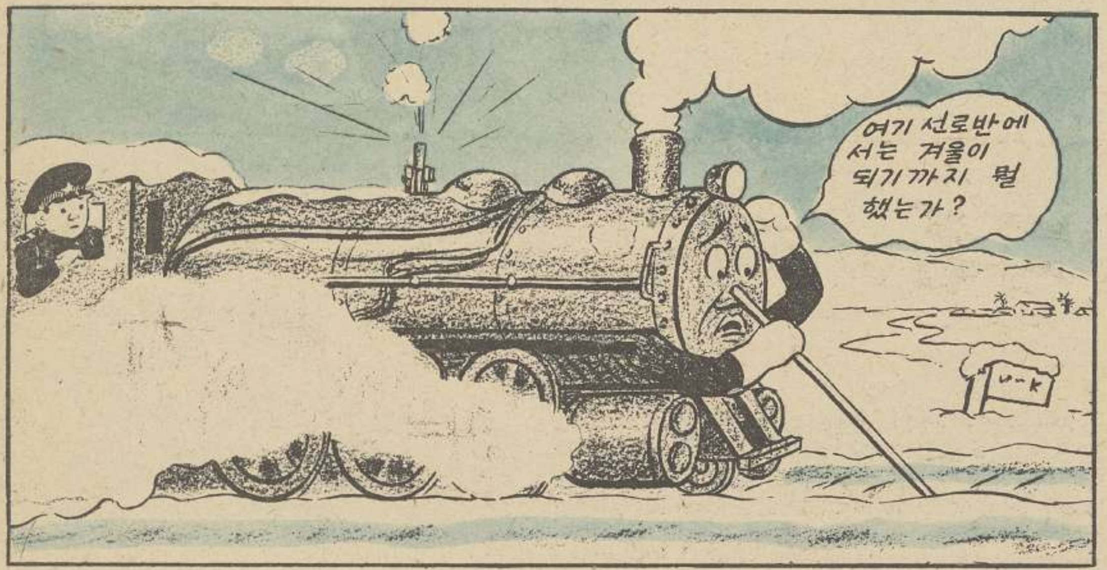
×

농기구 공장들에서는 농촌에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구체적 실정을 모르고 구름에 둥둥 떠서 사업하고 있다.

김 상 애

## 농민들은 집체 수매를 열렬히 환영한다

리 영춘 그림




## 잠자는 신포 선박 수리 공장에서

신포 선박 수리 공장에서는 배 수리를 굼뜨게 해 줌으로서 동기 어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원 광수 그림

## 록음실

### 뻐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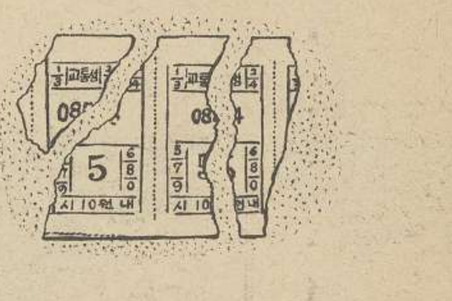
전에는 곧 떠나려는 뻐스를 보면서도 헐떡이며 표를 사와야만 탈 수 있었다면 요사이는 돈을 내고 타면서 표를 받게 되였다.

그래서 뻐스를 타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제도가 퍽 마음에 든다는 듯이 기뻐들 했다. 몇달이 지나갔다. 이 좋은 제도를 나쁘게 리용하려는 차장들이 가끔 눈에 띠이게 됐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100원 짜리를 내는 경우(물론 잔돈을 준비 안하는 손님도 나쁘지만) 흔히는 손님이 다 타고 떠난 후에 거스름'돈을 주는데 거스름'돈을 줄 때에는 그새 잊었는지 표는 안주고 거스름'돈만 주고 마는 차장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장씩 주어야 할 뻐스표를 반장씩 찢어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두장을 가지고 세사람에게도 네사람에게도 쪼개서 나누어 주는 차장들이 있는 때문이다. 10월 8일 팔동교행 83호차가 떠나려고 했을 때 달려온 손님들이 차에 올랐다. 나는 얼'결에 올라타고 표를 받고 보니 너무도 표가 작기에 뒤따라 오른 부인들의 표를 보았다. 두사람이 함께 받은 표는 량쪽에서 절반씩 짤린 것이였으니 이것은 두장을 가지고 넉장에다 쪼개 준 것이였다.

이런 일은 낮에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밤에 평양역에 기차가 와 닿았을 때면 한꺼번에 쏟아 나온 손님들이 저저마다 뻐스에 올라탄다. 이렇게 혼잡한 때면 의례 한몫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몇장으로 쪼개진 표가



손님들한테 돌아가군 하는 일이 가끔 있다. 이럴 때에는 흔히는 차장은 자기의 완장의 번호를 접어 놓군 한다 나는 가끔 차내에서 자동차 사업소에서 나온 듯한 검열원 완장을 단 분들이 정기 승차권을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수백명의 차장들 속에는 이렇게 국가 재산을 협잡해 먹는 차장들도 없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좀더 주목을 돌려야겠다.

### 수직하던 날 밤

날씨는 추웠다 덕호와 창수는 수직을 하고 있었다. 둘이 번갈아 자기로 하고 덕호는 초저녁에 먼저 한잠 잤다. 창수가 깨워서 눈을 떠 보니 자정도 지나고 한시가 돼 있었다.

이제부터 아침까지는 새워야 할 판인데 덕호는 자다가 깨서 그런지 으스스하고 추웠다.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있다. 스토브를 안듯이 바싹 다가 앉았으나 가슴팍에만 따뜻한 맛이 있을 뿐 등곬으로는 여전히 찬 바람이 솔솔 기여 든다. 스토브에 장작을 두어 가치 집어 넣었더니 그제야 몸이 조금 훈훈 해지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등곬이 싸늘해서 눈을 떠보니 장작은 다 타고 스토브는 미지근했다. 그는 장작을 또 넣고는 또다시 졸기 시작했다.

스토브 안의 장작이 다시금 다 타자 그는 또 눈을 떴다. 시계를 쳐다보니, 세시가 지났다. 이쯤 되면 수직 검열을 올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는 자주자주 장작을 넣기도 귀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토브에 장작을 넣을 수 있는껏 가득 넣었다. 스토브는 활활 달아 올랐다. 덕호는 의자를 멀직암치 밀어 놓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졸다가 아주 잠이 들어 꿈까지 꾸었다.

꿈 속에서도 더워서 의자를 좀더 멀리 뒤로 밀어 놓았다. 그러나 더웠다. 아니 따거웠다 그는 비로소 눈을 떴다. 수직실 안에는 불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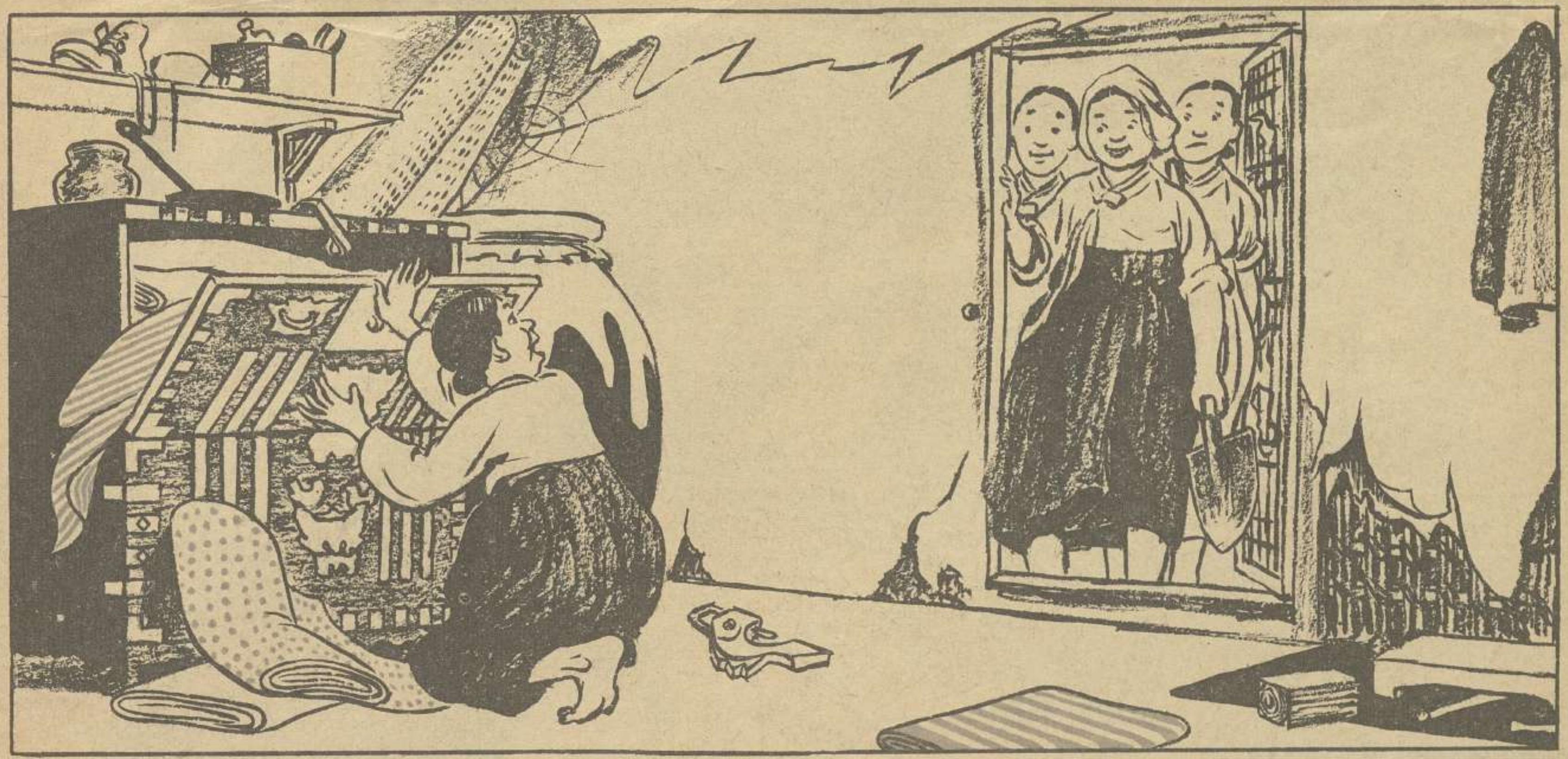
덕호와 창수는 간신히 불 속에서 뛰여 나왔다. 그러나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준 책임을 지게 되였다.

수직하면서 잤으며 게다가 또 불조심까지 못한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늦었다.



## 문화적인 살림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부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농민들 속에는 증대된 수입을 문화적인 농촌 건설에 유효하게 사용할 대신에 지나치게 천만 사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농짝 안에 들어 가 사실려우,집은 안 꾸리고……

송 용남 그림

## 한 치 앞도 못 본다

—리력서 내용이 참 훌륭하오
어서 가 사업에 착수하시오

송 용남 그림

## 하루사리식 조합원의 댁에서

가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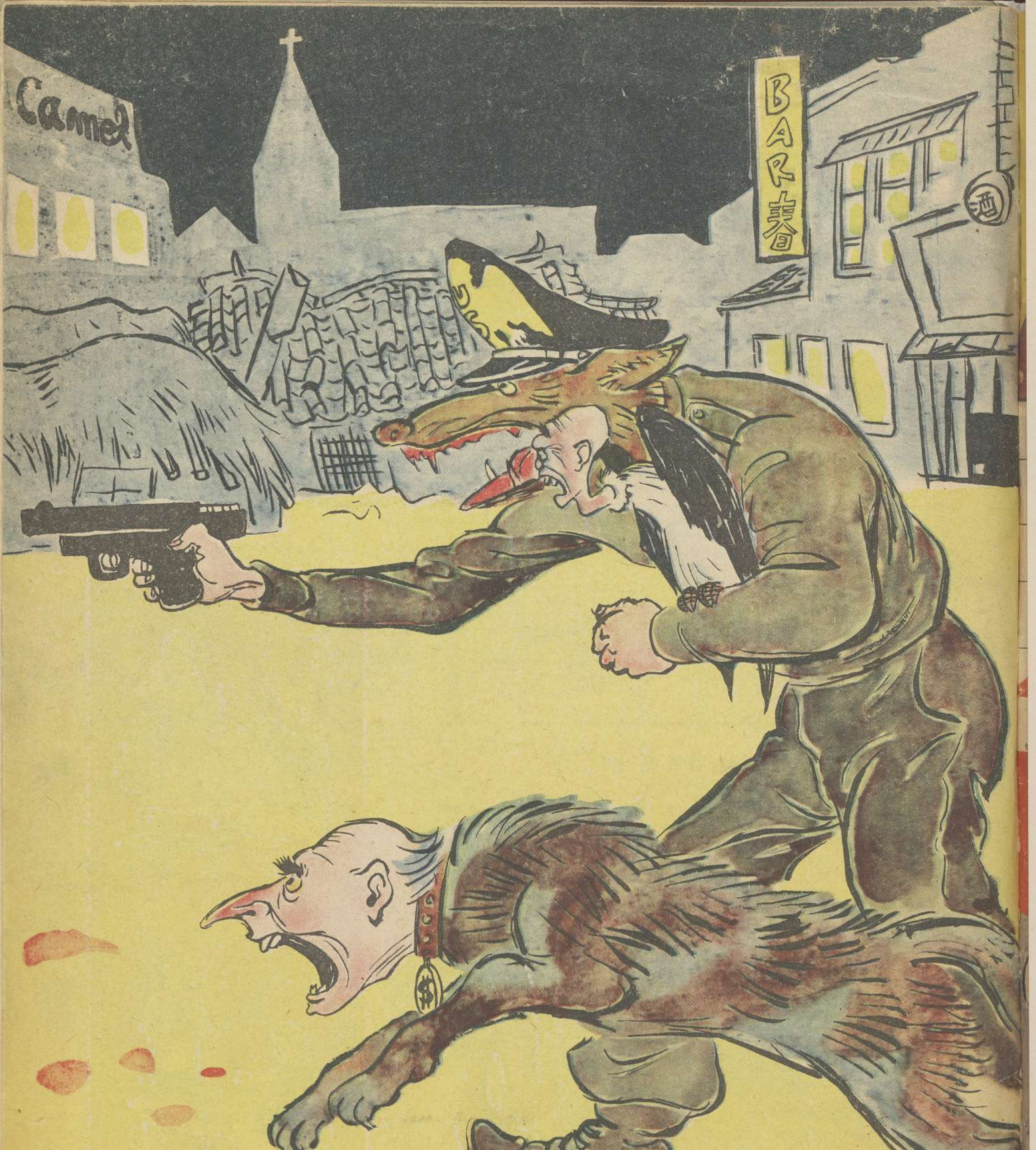
봄에는……

홍 종호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11. 10 40689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11. 15 값(50원)




남조선에서 미제 야수들은 조선 사람을 닥치는대
로 총칼로 학살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개를 추겨서
로인파 어린애들을 물리게 하였다.

미국놈이 갠지 개가 미국놈인지

박 승히 그림